

우노 지요의 결혼생활 담론

- 『찌르다(刺す)』를 중심으로 -

이상복*
sblee@syu.ac.kr

<目次>

- | | |
|-----------------|-------------------------|
| 1. 서론 | 3. <나>에 투영된 우노 지요의 결혼생활 |
| 2. 여자, 연상녀의 자존심 | 4. 결론 |

主題語: 결혼생활(Marriage life), 연상녀(wives older than their husbands), 질투(jealous), 자존심(self-esteem), 별거부부(separately living couples)

1. 서론

『찌르다(刺す)』¹⁾는 전후(戰後) 우노 지요(宇野千代)와 기타하라 다케오(北原武夫)²⁾ 부부의 “스타일사 재개(再開)에서 도산에 이르는 경위”³⁾와 결혼생활이 파경을 맞은 “이별을 그린 소설”⁴⁾이다.

지요는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어 있는 스타일사의 『스타일』⁵⁾을 “여자만이 읽는 멋진 잡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그 무렵 ‘스타일’이라는 안약이 유행하고 있는 것에서 힌트”⁶⁾를 얻어 1936년 6월에 창간하였다.

*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 1) 『찌르다(刺す)』는 단속적으로 발표 된「答える」(『新潮』1963년 1월호),「言う」(1964년 1월호),「刺す」(1965년 5월호),「笑う」(1965년 9월호),「落ちる」(1966년 1월호)를 모아 1966년 2월 신조사에서 간행. 大塚豊子(1999)『宇野千代『刺す』論』『学苑』通号705, 昭和女子大学光葉会, pp.2-3 참조
- 2) 기타하라 다케오(北原武夫, 1907년2월28일-1973년9월29일): 소설가. 1938년『妻』로 아쿠타가와상 후보가 되기도 하였다. 통속적인 심리소설가로 인기가 있었다.
- 3) 大塚豊子(1999) 전제서, p.9
- 4) 紅野敏郎(1999)「志賀直哉宛署名本(5)―宇野千代の『刺す』」『日本古書通信』日本古書通信社, p.8
- 5) 일본에서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패션』이라는 잡지가 아시야(芦屋) 시내에 있는 패션사로부터 1933년에 간행되기도 했지만, 전국규모의 최초 패션잡지는『스타일』이다. 笹尾佳代(2011)『宇野千代における〈装い〉の意味 : 雑誌『スタイル』編集と「あいびき」をめぐる』『国文学論叢』56, 竜谷大学国文学会, p.46
- 6) 宇野千代(1999)『宇野千代の世界』海竜社, p.24

이렇게 지요가 스타일사를 운영하고 2개월 쯤 지나 기타하라 다케오(北原武夫)가 「도쿄신문 가정란」에 실을 기사를 부탁했다. 그 후, 다케오는 자신의 소설이 실린 『사쿠라』라는 동인 잡지를 지요에게 보내 주었고, 그 답으로 지요가 “다니자키 준이치로와 Honore de Balzac(1799년5월20일-1850년8월18일,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가)를 합쳐 놓은 것 같은 뛰어난 재능”이 보인다는 호평의 편지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그 후, 지요의 적극적인 권유로 다케오는 1937년 6월 신문사를 그만두고 『스타일』의 편집을 담당하다가, 1939년에 두 사람이 결혼⁸⁾하여 함께 스타일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스타일』은 1941년 10월부터 『여성생활(女性生活)』로 개제(改題)되어, 1944년 1월 까지 간행되었지만 전황(戰況)의 악화로 중단되었다가, 전후 다시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복간되어, 1959년 5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⁹⁾

이런 이력이 있는 『스타일』의 전후 복간을 둘러싼 지요 부부의 결혼생활이 『찌르다』의 중심테마로 되어 있다. 특히, 지요가 자신의 감정을 실어내고 있는 여주인공 <나>는 외모에 자신이 없으며, 남편보다 연상(10세)이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여성이다. 이런 <나>는 스타일사 성공에 의한 경제적 여유만큼이나 남편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있음을 느끼고,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항상 빗나가고, 끝내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남편을 붙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태연하게 헤어지는 남편의 이삿짐 정리를 도우기도 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찌르다』의 선행연구에서, 오쓰카 도요코(大塚豊子)는 여주인공 <나>를 통해 “실제생활에서 갈림길에 서 있던 시기”의 생활을 기조로 한 작가의 “사소설”¹⁰⁾로, 세토우치 자쿠초(瀬戸内寂聴)는 “부부생활의 파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버림받아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그 슬픔을 경험하고도 계속 사랑을 추구해 나가는 “연애소설”¹¹⁾로 평하고 있다.

그러나 『찌르다』에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보다는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남편과의 갈등, 특히 외모에 자신 없는 연상인 아내가 느끼는 감정을 작가가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나>의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연상의 아내라는

7) 宇野千代(1972)『私の文学的回憶』中央公論社, pp.91-93 참조

8) 다케오는 이미 결혼하여 부인 미호코(美保子)가 있었으나, 그 해 3월에 결핵이 악화되어 타계하고 난후 지요에게 청혼했다. 이에 지요(42세)는 다케오(32세)와의 결혼에 있어, 열 살이나 되는 연령차를 염려했다. 결국 그 연령의 차이가 결혼생활 내내 지요를 열등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했다.

9) 笹尾佳代(2011) 전제서, p.46

10) 大塚豊子(1999) 전제서, p.2

丸谷才一(1979)『解説』『日本の文学』46 中央公論社, p.499

11) 瀬戸内寂聴(1996)『宇野千代著『刺す』』『わたしの宇野千代』中央公論社, pp.62-63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고자하는 여성의 내면세계를 분석한다.

더불어, 지요가 다케오와의 결혼생활을 주제로 한『행복』도 연구대상으로 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논증해 나가기로 한다.

2. 여자, 연상녀의 자존심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거듭해 온 지요가 다케오와 27년이라는 가장 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스타일사의 『스타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전후 스타일사 재건과 지요 부부의 결혼생활을 여주인공 <나>와 남편 요시토를 통하여 그려내고 있다.

전후, 바로 잡지를 출판하는 것을 <나>와 남편은 망설였으나, 어느 봄날 집으로 방문한 “40대 남자”의 권유로 마루이 빌딩 4층을 빌려 잡지를 발간하기로 한다.

예약모집 광고에 주문이 쇄도하고 돈이 홍수처럼 들어오자, 그 불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사라져 버렸다.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팔린다. 그런 시대였는지도 모른다.¹²⁾

이렇게 “전쟁의 여파”로 “인쇄물”을 접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문화적인 충족을 갈망하고 있을 때라 『스타일』복간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 년쯤 지나 빌딩 주인이 바뀌어 사무실을 비워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긴자도 아직 그을린 채였다. 아쉬운 대로 판자로 칸막이를 한 가게와 불탄 흔적을 보수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가 많았다. 가게의 중간을 분할하여 권리를 파는 곳도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너무 좁았다. ¹³⁾

부부는 마땅한 곳을 구하지 못하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이

12) 본문인용은 宇野千代(1979) 『刺す』(『日本の文學』46 中央公論社)에 따름, 이하 동일.

予約募集の広告に注文が殺到し、金が洪水のようにはいって来ると、その不安は始めからなかったもののように消えてしまったのであった。紙に印刷してあるものなら何でも売れる。そういう時代であったのかも知れない。(p.205)

13) 銀座もまだ焼けたままであった。間に合わせた板囲いをしている店や、焼けあとを補修して商いをしている店が多かった。店の中を分割して権利を売るところもあったが、それでは狭過ぎた。(p.207)

그대로 남아 있는 긴자에 하얀 페인트를 칠한 2층 건물을 지어, 2층은 사무실로 일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함께 있어 불편함을 느낀 <나>는 주거공간이 따로 있으면 “남편과 조용히 집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¹⁴⁾에 서둘러 부부가 전쟁 중에 일시 머물렀던 추억이 있는 아타미에 주택을 지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남편만 작업을 핑계로 아타미로 가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아타미에 간다고 나간 남편이 그날 저녁 긴자의 양복점 앞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마음을 모르는 지인은 남편에게 애인이 생긴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집 율타리 근처를 달려가는 걸 봤는데, 빨강계 염색한 머리를 다 뒤로 넘기고 있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설마 했어. 그런데 저 모퉁이에 있는 옷 가게에서 만나, 여기저기 같이 다녔어요. 당신은 몰랐어?”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¹⁵⁾

주위사람들은 평소에 두 사람이 금실이 좋은 부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에 더욱 관심이 생겼는지 모른다. 실제로 부부는 언쟁을 벌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는 두 사람으로 대화가 잘 통해서가 아니라 <나>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남편이 반대하는 일 없이 거의 묵묵히 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말다툼을 하지 않고 이해를 잘하는 자상한 부부였다. 이런 모습의 부부도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회사의 운명이라는 공통된 염려가 있었다. 그것은 위험한 유리병 속의 운명이었다. 이 염려 또한 우리 관계를 연결하고 있는 하나의 굴레였던 것일까.¹⁶⁾

이 부부의 공통 관심사는 회사의 운명에 있었으며, <나>는 그것이 부부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나>는 두 사람의 관계가 “회사의 운명”을 같이하는 “유리병

14) 大塚豊子(1999) 전계서, p.4

15) 「うちの垣根のそばを走って行ったの見たけど、髪を赤く染めて、ばあアと後へ抜けてね、」と言う人もあった。「まさかと思ってたわ。だって、あそこの角の洋品屋で落ち合って、あそこから方々へ一緒に出かけてたのよ。あなた知らなかった?」と訊く人もあった。(p.214)

16) 実際にもまた、何一つ言い争うことのない、理解の行き届いた夫婦であった。こういう形の夫婦というものもある、と私には思われる。私たちの間には、いつでも、社の運命という共通の心がかりがあった。それは危ないガラス壺の中の運命であった。この心がかりもまた、私たちの間をつないでいる一つのきずなであったのか。(p.240)

속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 부부는 회사라는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대화를 나누었지만, 개인적인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 하지 않아 부딪칠 일이 없을 정도로 감정교류도 거의 없었던 것이다. 처음에 <나>는 이런 생활이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차츰 남편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침, 두 사람이 저녁마다 댄스홀 출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은 <나>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고 젊은 댄서들과만 춤을 추었다.

만약 내가 좀 더 젊었다면 질투를 해도 그렇게 싫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자신을 속이고 싶었다. 자신이 나이 들어서 육체적 매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나와 함께 춤추는 것을 피해서 젊은 댄서들과 춤추고 있는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¹⁷⁾

댄스홀에서 남편이 자신을 피하자 마음이 복잡해 졌다. <나>는 자신이 “육체적 매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춤을 잘 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몰래 “댄스 교습소”에서 개인지도를 받기도 한다. 춤을 잘 추게 되면 남편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그제야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나>는 이런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가의 물건을 사들인다.

나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사면 분명히 화젯거리가 되는 물건을 사곤 했다. 허영심이 잠시 질투심을 잊게 하기 때문일까. 그건 여자로서의 매력을 운운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도, 뭔가 질투하는 마음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때의 기괴한, 그러나 결코 동정하는 것을 용서받지 못한 기분을 나는 스스로도 비참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¹⁸⁾

<나>는 이렇게 “허영심”이라도 발동시켜 “질투심”을 잊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시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허탈감은 그대로 남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답답한 마음에서 해방”(p.219)되기 위해 새 잡지를 하나 더 만들자는 제의를 했다.

-
- 17) たぶん、私がもう少し若かったら、嫉妬をまる出しにすることもそう厭ではなかったろう。私は自身を欺いていたかった。自分が若くなくて、自分の体に魅力がないために、良人が私と踊るのを避け、若い踊り子とばかり踊っているのだとは思いたくなかった。(p.211)
- 18) 私はほんとうに自分が好きである品物ではなく、それを買えばきっと話の種になる、というものを買うことがあった。虚栄心が一時の嫉妬を忘れさせる、というのであったろうか。それは女としての魅力を云々されたのと似てはいなくても、何か、嫉妬の気持と置き替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っていたのだろうか。そのころの奇怪な、しかし決して同情することを許されない気持を、私は自分でも悲惨なものに思うのである。(p.215)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이 썸에서 새 잡지¹⁹⁾ 하나 출간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을 했다. 우리사이 대화는 이러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의외로 자유로웠던 것이다.

“새로운? 또 하나의 잡지를 낸다?”

“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잡지요. 소형판의 완전히 통속적인”

남편은 내 얼굴을 보며 침묵했다.²⁰⁾

<나>의 제의에 남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이 선뜻 찬성 하지 않았지만, 반대도 하지 않아 새 잡지를 출간하게 되었다.

나는 남편이 정사에 소비했던 만큼의 열정을 이 새로운 일에 기울이길 바라기라도 하는 듯이, 아니 남편의 정사에 대항하여 나도 똑같이 애인을 만들어 남편의 정신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경박한 아내의 열정을 이 새로운 일에 쏟기라도 하듯 마치 미친 듯이 이상한 관심으로 준비에 임하였던 것이다.²¹⁾

이렇게 최선을 다해 만들었지만, 새 잡지의 실적이 부진하자 <나>는 “남편의 정사를 잊으려고 무모하게 일을 진행한 자신의 어리석음”(p.222)을 깨닫고 서둘러 폐간시키고 말았다. 다시 <나>는 남편이 아타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긴자에 저택을 짓기로 했다.

아타미의 집에 이어 또 한 채의 집이 도쿄에, 더구나 회사 근처에 아타미집 보다 훨씬 넓고 좀 더 살기 좋은 집이 생긴다면 혹시 남편이 아타미 집으로 안가지 않을 까. 아니 남편이 아타미로 간다는 구실을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애인과의 만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²²⁾

19) 실제로 우노 지요 부부는 스타일사에서 1938년 11월 월간문예지『문체』를 창간하였지만 7호로 종간. 1941년 9월 문체사를 설립하여『문체』를 재간하였지만 4호로 휴간. 1947년 12월 계간지로 복간되었지만 1949년 7월 4호로 종간되었다. 大塚豊子(1999)『宇野千代『刺す』論』『学苑』通号705, 昭和女子大學光葉會, p.15와 宇野千代(1999)『宇野千代の世界』海竜社, pp.43-44 참조.

20) 「この辺で新しい雑誌を出したら好いと思うけど、」とある日、私は良人に話しかけた。私たちの間の会話は、こういう仕事のこととなると、思いがけなく自由になるのであった。「新しい? もう一つ別の雑誌を出すのか、」「ええ、まるで違った種類のものをよ。小型判の、思い切り通俗的な、」良人は私の顔を見て、だまった。(p.218)

21) 私は良人がその情事に費したのと同じ分量の情熱を、この新しい仕事に傾けたいと願ってでもいるように、いや、良人の情事に対抗して、自分もまた、同じように新しい情人を持って、良人の気持を騒がせようとする浅はかな妻の情熱を、この新しい仕事に傾けたいと願ってでもいるように、一種、気違いじみた、異常な関心を持って準備にかかったのであった。(p.218)

22) 熱海の家よりもほかに、もう一つ、東京に、しかも社のすぐ近くに、熱海の家よりももっと広く、もっと住み心地のよい家ができたなら、あるいは良人が熱海の家へ出かけて行かなくなるのではある

이렇게 남편과 애인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려고 긴자에 새집을 지었지만, 이번에도 <나>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다.

남편의 외출은 줄어들지 않았고 급기야 삼일동안 연락도 없이 외박을 했다. <나>는 혼자서 책장에 있는 책을 뒤적이다 지인이 말한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바로 남편의 애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억지로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었지만 사진을 보고나서야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평소 남편과의 관계를 “변칙적인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토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반적인 부부들에 비해 특별한 생활 방식은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지만, 실제로는 완전 다른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우리 부부사이에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나이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²³⁾

<나>는 자신들의 생활이 표면적으로는 어느 부부들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나이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연상인 자신이 남편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없다는 열등감으로 스스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의 정사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장면”(p.214)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남편의 정사를 알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에는 스스로 어떻게든 할 수 없다는 공포가 있었다.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세상 여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이기만 하면 그게 아무리 잔혹한 일이라도 상관없다. 진실이라는 것만 알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것으로 마음이 평온해 진다. 속고 있는 것만은 참을 수 없다, 등의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 남편의 정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두렵다.²⁴⁾

まいか。いや、熱海へ行くという口実を良人から奪うことによって、その清人と会うことを少くさせるのではあるまいか、とそう考えたのであったろうか。(p.223)

- 23) 私たちは世間普通の夫婦に比べて、どこと言って変った暮らし方はしていなかった。表面ではどこと言って変ったところがないのに、ほんとうには全く変った暮らし方をしていた、と言った方が好いだろうか。私たち夫婦の間の、一番変則なことと言うと、年齢の均衡がとれていないことだった。(p.210)

- 24) 良人の情事を知りたくない気持の中には、自分では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恐怖があった。私と同じような身の上に陥った世間の女たちが言っているように、ただほんとうのことが知りたい。ほんとうのことでさえあつたら、それがどんなに残酷なことであっても構わない。ほんとうのことでさえ知たら、それで好いのだ。それで心氣持がしずまる。だまされているのはたまらない。などという言葉は信じない。私はほんとうのことが知りたくない。良人の情事をまざまざと知ることは恐ろしい。(p.214)

그러나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아내들은 남편이 외도를 해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용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남편 애인의 사진을 발견하고서도 진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남편으로부터 직접 애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인정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여자”(p.214)가 되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것만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탈피하고 싶은 생각에 <나>는 마침 크리스마스로 들뜬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쓸리고 싶어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서 본다.

시내 여성복 가게의 거울 앞에서 거기에 화려한 외제 옷감의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악마의 장난 인지, 아직 본 적이 없는 요시토의 젊은 연인과 비교해서 어찌면 그토록 순간의 환상과도 같이 변장한 불쌍한 여자처럼 생각되었던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²⁵⁾

이 순간에도 <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나이든 모습과 남편의 젊은 정인의 모습을 비교하며, 다시 “요시토에게 잊혀진 불쌍한 여자”(p.221)일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렇게 『찌르다』에는, 스스로 연상녀라는 절망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요시토의 생각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나>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솔직하게 표출하면서도, 남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지요의 강한 자존심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요는 남편의 사랑을 간구하는 “한사람의 여자를 조형”²⁶⁾하여, “여성적 감각과 정념(情念)”²⁷⁾으로 “여성다움”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마음을 그려내고 있다.

3. <나>에 투영된 우노 지요의 결혼생활

<나>는 사업이 잘되어 “돈이 한순간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 가슴이 벅찰 정도로 기쁘지 않(p.206)”았으며, 오직 남편과 함께 할 때만 행복했다. 그래서 요시토에게 애인이 생겨 외박을 해도 책망하지 않으며, “요시토를 사이에 두고 애인과 다투는 경쟁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왔던 것”(p.228)이다. <나>는 여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요시토와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25) 街の婦人服店の鏡の前で、そこに、きらびやかな舶来生地のイヴニングに包まれた自分の姿を見たとき、何という悪魔の悪戯であろう、まだ見たことのない若い良人の情人に比べて、それは一瞬の幻にも似た、哀れな変装の女のように思われたことを、いまでも忘れない。(p.220)

26) 大塚豊子(1999) 전게서, p.12

27) 坂上博一(1973)「宇野千代」『女流文芸研究』南窓社, p.162

위해, 회사 자금사정은 무시하고 아타미에 이어 다시 긴자에 새집을 지어 남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그 얼마저 허사로 돌아가자 비싼 물건들을 사들이며 공허한 마음을 달래 보려한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물질적으로나마 채우려고 허덕이고 있을 때, 스타일사의 내부 고발로 회사가 “큰 액수의 ‘탈세’ 의혹에 휘말려 대대적인 조사”(p.229)를 받게 된다. 갑자기 부부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궁지에 몰린 모습으로 여기에 와있는데도, 여전히 무언가 정정이 있다고 할 까. 우리는 거기에 나란히 깔려있는 이부자리 안에 드러누웠다. 전등이 꺼진 가운데 희끄무레하게 장지문의 가장자리가 보인다. 우리 마음속을 공통으로 동요시키고 있는 것은 오늘 일이었다. 그 공포의 요동 사이에 나의 마음을 스쳐지나가는 정감이 있었다. 그건 낯선 여관에서 남편과 나란히 이부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공포와는 전혀 관계없는 환희에 가까운 어떤 감정이 있었다. 28)

<나>는 돈이 많이 들어 올 때 보다 회사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두 사람이 여관방에 함께 지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오히려 행복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어떻게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의 모습에서 <나>는 “창저 입은 동물이 어깨를 맞대어 의지하는 것과 흡사 닮아 있다.”(p.234)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런 두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진 부부는 <나>의 동생을 의지하여 아오야마로 이사를 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오직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나>는 “옷”을 만들어 팔고, 남편은 “글을 쓰고 받은 원고료”로 조금씩 갚아나갔다. 이런 생활에서도 <나>는 오직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한집에서 따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시작된 부부 별거는 급기야는 식사까지 따로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남편의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까지 <나>에게 연락도 없이 별채의 도우미가 다 준비했다. 이쯤 되자 지금까지 남편의 손님접대만은 직접해 왔다는 자부심마저 무너져 버린 <나>는 왠지 허무한 마음이 들었다.

28) 追い詰められた姿でここに来ているのに、それでもなお、何かの情景があると言うのか。私たちはそこに並べて敷いてある寝床の中に横たわった。燈の消えた中にほの白く、縁の障子が見える。私たちの心の中を共通に揺り動かしているものは、今日の出来事であった。その恐怖の波の間に、私の心を駆け抜ける情感があった。それは、見知らぬ宿で良人と一緒に寝床を並べて寝ているということに、恐怖とは全く関係ない歓喜に似たある感情があった。(p.230)

이것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상대의 감정이 향하는 곳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는 한 집에 있으나, 어쩌면 먼 곳에 있는 것과도 같은 기분이 든다. 29)

그 당시 보기 드문 한 지붕아래 부부의 별거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 작품의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작가 자신도 <나>를 통해 부부의 별거생활을 “이상한 생활”이라고 적고 있다.

우리는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디서 불쑥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오랜 기간 형성된 습관에 의해 나타난 나와 남편이 마치 스스로 원했던 것, 즉 납득 할 수 있는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었다. 별채에서의 생활은 이 상황을 유연하게 만들었다. 30)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가 식사에서부터 모든 생활을 따로 하게 되니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연히 무관심해졌다. <나>가 디자인 전시회로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 남편은 신경통으로 갑자기 위독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 사실마저 <나>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끝내 지인이 라디오 방송으로 들었다며 알려주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와 남편의 병간호를 하였다. 그런데 남편이 퇴원하고 얼마 안 있어 이번에는 <나>가 길을 가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7개월 동안 누워서 지내야만 했다. 이때도 역시 <나>의 사고를 아무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남편이 나타났다.

내가 다쳤기 때문에 남편이 내 침실로 왔다는 사실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흐르는 따뜻한 행복감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31)

<나>는 남편에 대한 “의심, 질투, 불안, 공포”를 가지면서도 아픈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태도에 잠깐 평안”32)을 느끼기도 한다.

29) このことは私にたくさんの考えることを残した。男と女の間で、相手の感情の趣く場所を知らずに暮らすということが、どういうことなのか、考えてはみなかったか。同じ家の中にいて、私たちはときとすると、遠いところにいるような気持になる。(p.239)

30) 私たちはおかしな生活をしていた。それはどこで突然に差し出たことではなかった。長い間形成された習慣を原因として、出てきて夫があたかも自ら望んだこと、すなわち納得できる形態の生活をしていることだった。離れ座敷での生活はこの状況を柔軟にさせた。(p.249)

31) 私が怪我をしたために、良人ガこの私の寝室に來たということで、そのとき私の心の中を流れたあのあたたかき仕合せな思ひを、私はいまでも忘れない。(p.255)

32) 大塚豊子(1999) 전게서, p.4

텍스트에서 지요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이라는 회상표현을 여러 군데 적고 있다.

나와 헤어지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내가 걸을 수 있게 되길 바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도 나는 그때 남편의 눈에 비쳤던 그 따스한 부드러움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남편은 나의 이런 감정을 숙고 있는 아내의 감정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에겐 똑 같은 것이다.³³⁾

지요는 다케오와의 결혼생활을 회상하며, 다리를 다쳤을 때 간호한 남편의 행동이 자신과 빨리 헤어지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진정성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남편이 언제 이별을 통보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어렵게나마 남편과의 생활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회사 부채가 거의 청산되어 갈 즈음 남편은 이별을 고했다.

“역시 이혼하고 싶어”라고 남편이 말을 했을 때, 그 투명스럽고 무뚝뚝한 소리는 나의 귀를 스쳐지나 장지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갑자기 나의 몸이 우주에 떠 있는 기분이 들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좋아요”라며 소곤소곤 혼잣말 같은 말투로 대답했다. 후들후들 몸이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서둘러 미소 지으려고 했다.³⁴⁾

<나>는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요시토로부터 “이혼”이라는 말을 직접 듣고는 당황해한다. <나>는 떨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요시토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한다. 이때도 역시 <나>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요시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속내를 들어 내지 않았지만, <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오랫동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용서해 주시오.”라며 격식을 차린 말투로 말했을 때, 갑자기 남편의 눈에 눈물의 고이는 것을 보았다. (中略) “그것은 피차일반이예요. 그런 일은 결코 없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편과의 생활에서 의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편을 곤란하게 하고 놀라게 한 일이 없었다고 말 할 수 있을까?³⁵⁾

33) 私と別れるために、一日も早く私が歩けるようになることを望んでいたとあとで分っても、私はこのときの良人の眼の中にあった、あのもの柔らかな優しさをいまでも忘れない。人はこのわたしの感情を、だまされていた妻のものと思うとも、私には同じことである。(p.258)

34) 「やっぱり、離婚してもらいたいんだ。」と良人がそう言い出したとき、そのぶっくら棒な、素っ気ないような声は、私の耳を通り越して、そこの障子を通り抜けて、そとへ出て行くように思われる。ふいに私は、体が宙に浮くような気持ちになりながら、「あなたがそうしたいと思うなら、私の方は好いの、」と、ぼぞぼぞとひとり言のような言い方をして答えた。かちかちと体がふるえるような気がしたが、急いで微笑しようとした。(pp.259-260)

요시토는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고 말한다. <나>역시 본의 아니게 남편을 많이 힘들게 했으며,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탓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남편이 떠나는 것을 가능한 즐겁게 보내주고 싶었다. 그렇게 보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언제나 그 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의 습관이었지만, 일부러 그곳에 들어서 짐 옮기는 것을 돕거나 별채에서 나의 심부름을 하고 있던 남자들을 불러 무거운 짐을 트럭에 옮기는 것을 돕게 했다. 스스로 자진하여 그 일을 함으로써, 나의 슬픔은 마치 다른 것처럼 변형되는 것을 경험에 의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⁵⁾

<나>는 헤어지는 남편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사를 돕기도 한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남편을 보내주고 싶었던 것이다.

남편이 가 버린 뒤, 처음으로 내 눈에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우리는 25년³⁶⁾ 동안 같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 긴 시간 같이 있었다는 것으로 두 사람 중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의심 없어 진 것은 내 오만이었을까? 하지만 지금도 나에게는 이대로의 생활이 자연스럽지 않았고 남편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리였는지를 생각하며 이해했다.³⁸⁾

35) 「ながい間、君を傷つけたけれど、勘弁してください。」と、改まった言い方でそう言った時、ふいに良人の眼に、涙の浮かぶのを見た。(中略)「それはお互いさまよ。そんなことは決してないから、気を楽にしてほしいわ。」良人との生活の間、意識してではなかったにしても、良人を困惑させ、どう든動揺させたことが、なかったと言えるだろうか。(p.260)

36) 私は良人の出て行くのを、できることなら、喜んで送り出したい、そういう風にして送り出すのが、私のすることだ、と思っていた。いつもはその部屋の中にはいたり、決してしないのが習慣であったが、わざわざそこにいて、荷造りを手伝ったり、別棟で私の仕事の手伝いをしている男の子たちを呼んで、重い荷物をトラックに載せるのを、手伝わせたりした。自分から進んで、そのことをすることによって、私の悲しみは、まるで違ったもののように変形するのを、私は経験によって知っていたからである。(p.261)

37) 여기서 <나>와 요시토는 25년간의 결혼생활로 표현하고 있지만, 지요와 다케오는 1937년에 만나 함께 지내다 1939년에 결혼하여 1964년 이혼함으로써 2년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실제 결혼생활만 계산하면 25년이며, 함께 한 걸로 하면 27년이 되므로 책마다 표현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 良人が行ってしまったあと、初めて、私の眼に涙がどっとあふれて来た。私たちは二十五年の間、一緒にいた。何か事があったとしても、そのながい間一緒にいたということで、この形のまま、二人のどちらかの死がくる時まで、暮しているものものだと思う、そのことに何の疑いもなかったのは、私の誤りであったろうか。しかし、いまになると私にも、このままの生活が自然ではなく、良人がほかのところに行かず暮していることが、そのことの方がどんなに無理であったかを考え、理解した。(p.260)

이때의 기분을 지요는 『親しい仲 宇野千代隨筆集』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5년이나 함께 살았던 남편과 이혼했다. 남편으로부터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절초풍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승낙했다. 이혼도 또 천재지변과 같은 것으로 아무리 바동거려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떠나고 나는 울었다. 그것은 이혼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살았구나하는 감계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 39)

지요는 남편이 떠난 후에야, 자신의 행동이 남편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다. 더 나아가 그런 남편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다. 지요가 이런 과거를 회상하며 그린 『행복(幸福)』에는 기타하라 다케오와의 결혼생활이 중심 테마로 되어 있다.

아오야마(青山) 집으로 이사 왔을 때, 가즈에는 제일 먼저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생각했다. 아오야마에는 별채로 되어있는 좀 괜찮은 방이 있었다. 남편은 그곳에서 안정을 찾았다. 40)

가즈에 부부는 서로 회로애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때로는 상대방이 하는 일을 보고도 못 본체 함으로써 서로에게 피해 주는 일을 최소화했다. 41)

『행복(幸福)』에서도 여 주인공 가즈에 역시 『찌르다』의 여 주인공 <나>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아오야마에서 생활공간을 따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의 여주인공들의 모델인 지요는 결혼생활의 과정을 맞이하고 난 후에 비로소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이 남편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더 나아가 지요는 자신이 결혼생활의 가해자였다고 고백한다. 42)

이렇게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해도 지요는 남편을 사랑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헤어지겠다는 남편을 붙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이삿짐까지 옮겨주는 여유를 보인다.

39) 宇野千代(1970)『親しい仲 宇野千代隨筆集』講談社, pp.33-34

40) 본문 인용은 宇野千代(1972)『행복(幸福)』文藝春秋에 의함.

青山の家に越したとき、とにかく一枝は良人の仕事の出来ることを先に考へた。青山には別棟をになつてゐる、ちよつとましな部屋があつた。良人はそこに落着いた。『幸福』(4)

41) 一枝たちはその喜怒哀楽ともに、影響をうけない場所に、ちやうど體を除けて暮らしてゐた。或ひは相手のすることを見て見ぬ振りをして、そのことによつて被害をかうむることを少しくした。『幸福』(4)

42) 이상복(2011)「우노 지요(宇野千代)가 추구하는 행복-『행복(幸福)』의 가즈에(一枝)를 중심으로」『일본연구』39 동아시아 일본문화학회, p.425 참조

이런 지요의 생각이 「그것은 기우인가(それは奇遇か)」와 「나의 문학적 회상기(私の文学的回想記)」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기우인가」에서 “나는 여러 번 ‘실연’당했다”⁴³⁾고 밝히며, 그때마다 “자신을 버리고 간 남자에 대해 더 이상 미련”⁴⁴⁾을 갖지 않았다. 「나의 문학적 회상기」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쓰는 작품에 까지” 그 사람을 언급할 정도로 빠져있다가도 헤어지면 바로 “해방감”⁴⁵⁾을 느낀다고 적고 있다.

이런 지요의 의지가 나타난 『찌르다』는 “작가자신의 생의 궤적”⁴⁶⁾을 더듬은 것으로, 결혼생활에서의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요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혼생활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후회만 할 뿐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남편과 헤어지면 바로 자신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우노 지요의 결혼생활, 특히 전후 『스타일』을 복간하고 난후의 생활을 『찌르다』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요의 모델인 <나>는 남편 요시토와 함께 스타일사를 운영하였다. 항상 <나>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에 대해 요시토는 거의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남편에 대해 연상의 아내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스타일』의 판매로 손이 아파 셀 수 없을 만큼 돈이 들어와도 경제적인 여유보다는 사랑하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동경해 왔다. 그런 <나>가 우연히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남편이 눈치챌까봐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심지어 외박을 하고 들어오지 않아도 질투하는 불쌍한 여자로 보이기 싫어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런 <나>는 남편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사랑을 물질로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 자금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아타미와 긴자에 큰집을 짓고, 비싼 물건을 구입하기도하며 많은 돈을 탕진했다. 그즈음 회사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많은 빚을 지게 된다. 당장 생활할 곳도 없어 부부는 아오야마에 있는 <나>의 동생집에서 기거하며 오직 부채청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43) 후지무라 다다시(藤村忠)는 지요가 오자키 시로와 동거를 시작하여 헤어지게 되었지만, 오자키 시로(尾崎士郎), 도고 세이지(東郷青児), 기타하라 다케오(北原武夫)등은 모두 먼저 지요와의 이별을 통보해 왔다. 그러므로 지요는 스스로 여러 번 실연당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44) 宇野千代(1981)「それは奇遇か」『或るとき突然』中央公論社, p.39

45) 宇野千代(1972)「私の文学的回想記」『私の文学的回想記』中央公論社, p.52

46) 大塚豊子(1999) 전게서, p.9

부채가 정리될 즈음 요시토는 이혼을 통보한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전혀 내색하지 않고 이삿짐까지 챙겨주는 여유를 보인다.

지요는 『찌르다』뿐만 아니라 『행복』에서도 다케오와의 결혼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두 작품의 여주인공을 통해, 남편을 배려한다는 명분아래 한 집안에서 별거부부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요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그때의 그런 행동은 일을 하는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지요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는 하지만,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끝났다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헤어지면 그동안 긴장한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마저 느끼며, 바로 현실로 돌아와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지요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찌르다』에서 <나>에 대한 요시토의 생각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지요가 <나>를 통해서 스스로 외모를 비하하며 연상의 아내로서 불안감과 절망감에 빠진 모습을 보이면서도, 남편으로부터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요는 결혼생활에서 남편보다 연상인 아내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와 그럼에도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은 끝까지 버리고 싶지 않다는 자기고백적인 강인함도 함께 보이고 있다.

【參考文獻】

- 이상복(2011)「우노지요(宇野千代)가 추구하는 행복-『행복(幸福)』의 가즈에(一枝)를 중심으로-」『일본연구』39
동아시아 일본문화학회
- 板垣直子(1969)『宇野千代』『明治・大正・昭和の女流文学』桜楓社
- 巖谷大四(1977)「昭和女流文壇の開化」『物語女流文壇史』下, 中央公論社
- 宇野千代(1999)『宇野千代の世界』海竜社
- _____(1983)「あとがき」『宇野千代全集』3 中央公論社
- _____(1981)『或るとき突然』中央公論社
- _____(1977)「あとがき」『宇野千代全集』, 中央公論社
- _____(1972)『私の文学的回想記』中央公論社
- _____(1972)『幸福』文藝春秋
- _____(1970)『親しい仲 宇野千代 隨筆集』講談社
- 大塚豊子(1999)「宇野千代『刺す』論」『学苑』通号705 昭和女子大學光葉會
- 岡宣子(1999)『幸福』作品鑑賞『短篇 女性文学 近代』おうふう
- 紅野敏郎(1999)「志賀直哉宛署名本(5)―宇野千代の『刺す』」『日本古書通信』日本古書通信社
- 坂上博一(1973)「宇野千代」『女流文芸研究』南窓社
- 笹尾佳代(2011)「宇野千代における〈装い〉の意味：雑誌『スタイル』編集と「あいびき」をめぐる」『國文學論叢』56 龍谷大學國文學會
- 瀬戸内寂聴(1996)「宇野千代著『刺す』」『わたしの宇野千代』中央公論社

丸谷才一(1979)「解説」『日本の文学』46 中央公論社

宮内淳子(1997)「作家ガイド宇野千代」『女性作家シリーズ』4 角川書店

논문투고일	: 2015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4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4월 20일

<要旨>

우노 지요의 결혼생활 담론

- 『찌르다(刺す)』를 중심으로 -

<나>는 남편이 젊은 애인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도 못 본체 하며, 외박해도 질투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외모에도 자신 없고 남편보다 연상이기 때문에 “불쌍한 여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나>에 대한 요시토의 생각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만큼 지요는 <나> 중심으로 표현하고 남편의 생각을 배제함으로, 남편이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끝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당황해 하면서도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며 이삿짐까지 돕는 여유를 보인다. 이렇게 지요는 <나>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다케오와의 결혼생활에서, 남편보다 연상인 아내의 한계를 그려내면서도 끝까지 여자로서의 자존심은 버리고 싶지 않다는 강인함도 보인다.

The Arguments in Chiyo Uno's Marriage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asu” -

“I” pretend not to notice as my husband goes out with a young mistress and, do not show an aspect as a woman who feels jealous even though he sleepover with her. “I” do not have confidence in my looking, thus always make a great effort to be the one not to be seen as a miserable wife who is older than her husband from others. However, Yoshito (my husband) does not care anything about such efforts. Chiyo, the author attempts to keep an expectation on the husband still loving “me”.

In the end, nevertheless, the husband required to divorce. “I” was perplexed but pretended not to. It indicates that there is a limitation of the wife who is older than her headband while she is showing her strength to hold her dignity.